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2. 17.(화) / 총 9매(본문3)
담당 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김기대, 서기관 김춘수, 사무관 유종우 • ☎ (044) 201-4204, 4184, 4187
	한국항공협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본부장 김광옥, 대리 김진욱, 대리 김진성 • ☎ (02) 2669-8713, 8736
보 도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7회 항공문학상 대상 발표...소설 '창공의 빛'

- 항공문학시·소설·수필 3개 분야서 총 1,197편 접수
- 제1회 항공정책 논문대회 시상도 병행...우수논문 6편 선정장관상 표창

□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 권기옥의 삶을 그린 소설 '창공의 빛'이 제7회 항공문학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에서는 우수논문 6편이 선정·발표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7회 항공문학상*'과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작품(논문)에 대한 시상식을 12월 18일(수)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항공문학상(시·수필·소설), 주관 : 한국항공협회, 후원 : 7개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한국문인협회)

** 대학(원)생 논문대회,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한국항공협회, 후원 : 6개 기관(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 올해 7회째인 항공문학상은 '항공과 사람'이라는 자율 주제로 시(동시 포함), 소설(단·중편), 수필(수기 포함) 총 3개 분야에 대해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 6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197편이 접수되었다.

- 접수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 소속 문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와 2차(본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44편*이 최종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 <참고 1> : 일반부(7편), 중고등부(6편), 초등부(31편)

- 영예의 대상은 소설 부문 ‘창공의 빛(일반부, 주지현)*’이 선정되어 상금 500만 원과 미주(또는 유럽) 왕복항공권 2매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권기옥) 이야기를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하여 창작 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주제와 구성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

- 최우수상은 시 부문 ‘공항 사람들(일반부, 정수미)’이 선정되어 상금 200만 원과 동남아 왕복항공권 2매가 수여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2명의 수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의 입회 특전이 주어진다.

□ 항공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 공고일 당시 석·박사 포함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15편이 접수되었으며,



- 접수된 논문은 항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 2~3차(본심) 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 <참고 3> :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

- 최우수 논문으로는 ‘항공사 직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가 선정되었고, 상금 100만 원과 동남아 왕복항공권 2매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항공문학상과 논문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은 국민들의 항공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항공문학상 홈페이지(<http://www.contest.airtransport.or.kr>)와 한국 항공협회 홈페이지(<http://www.airtrans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집은 항공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김춘수 서기관(☎ 044-201-4184), 유종우 사무관(☎ 044-201-41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제7회 항공문학상 선정 작품

□ **선정 작품 : 44명**

○ 일반부(7명), 중·고등부(6명), 초등부(31명)

- 일부 상격의 부문은 저자명 가나다순

구 분	부 문	작 품 명	저 자 명	
일반부 (7)	대상	소설	창공의 빛	주지현
	최우수상	시	공항 사람들	정수미
	우수상	수필	여행의 선물	김연수
		소설	전염	김은총
		수필	아버지, 이제 혼자 떠나실 수 있으시죠?	이정원
		시	수말락을 저어요	조영석
		소설	아버지의 아프리카	황선빈
중고등부 (6)	최우수상	시	온 우주가 꿈 빛으로	곽 민
	우수상	시	하늘의 심장으로	김서현
		시	엄마, 나는 하늘 위 사막을 날아요	김유비
		시	언젠가 허공을 수 놓은 것들이 있었다	박소영
		수필	다시 만난 괌 바닷가	최유나
		소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황인아

구 분	부 문	작품명	저자명	
초등부 (31)	최우수상	수필	내 마음 속의 비행기	남주하
	우수상	수필	고맙습니다 내 빨간 유모차가 10년째 튼튼해요	강민지
		수필	여행의 시작과 끝은 비행기	김민겸
		소설	나의 영원한 친구 스카이	김심비
		시	구름 빨래하는 날	서민기
		시	친절항공	황별아
	장려상	수필	비행기야 고마워	김설리
		시	비행기	박가은
		시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비행기!	박사운
		시	밤 비행	박서연
		수필	들어는 봤나, 공항의 휴게실	박서운
		소설	오늘도 추억비행	박지유
		시	구름은 마술사예요	배은서
		수필	비행기는 정말 멋져요	신승현
		소설	조선 승무원	안선민
		시	비행기를 타고 미래로	안연수
		소설	시호와 엄마의 여행	이다감
		시	비행기	이민찬
		소설	성윤이에게로 가는 여행	이승현
		소설	꿈으로 나르샤	이우현
		수필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훈련센터 탐방	이윤서
		시	비행기 놀이공원	이주성
		시	고마운 비행기 친구	이주연
		시	하늘길 내 꿈	이주용
		시	내 인생 첫 여행	이지은
		시	내 장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새로운 추억	임유찬
		수필	조종사 아저씨는 멋져요	장지호
		시	공갈빵 구름	정다경
		수필	지금 생각하면 서러운 기억	조유나
		시	아빠 만나러 가는 하늘 길	최윤서
	수필	가족의 소중한	최지인	

참고 2

제7회 항공문학상 상금 및 시상 규모

□ 시상규모

구 분	시상부문	상 장	인 원	상금 및 부상 등
일 반 부 (7)	대상	전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	1명 - 500만원 - 유럽 또는 미주(장거리) 왕복항공권 (2매) - 특전사항 (문인협회 입회자격)
	최우수상	대상 수상부문을 제외한 공모부문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1명 - 200만원 - 동남아 왕복항공권(2매) - 특전사항 (문인협회 입회자격)
	우수상	전 부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에어부산(주) 사장 상장	5명 - 80만원 - 국내왕복항공권 (각 1매)
중 고 등 부 (6)	최우수상	전 부문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1명 - 100만원 - 동남아 왕복항공권(2매)
	우수상	전 부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에어부산(주) 사장 상장	5명 - 50만원 - 국내왕복항공권 (각 1매)
초 등 부 (31)	최우수상	전 부문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1명 - 30만원 - 국내왕복항공권 (4매)
	우수상	전 부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에어부산(주) 사장 상장	5명 - 20만원
	장려상	전 부문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25명 - 5만원(각 1매)
총 계			44명	총 1,705만원 국내·외 왕복항공권 등

* 특전사항 : 일반부 대상 및 최우수상 입상자(각 1명)에게 문인협회 입회자격 부여

* 초등부 상금의 경우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참고 3

제1회 항공정책 논문대회 결과

□ 최종 당선작 : 6편

○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

구 분	논문명	성 명	상장	상금 및 부상
최우수상 (1)	항공사 직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	정영화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	- 100만원 - 동남아 왕복항공권(2매)
우수상 (2)	항공사업법상 재무건전성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인호		- 50만원 - 동남아 왕복항공권(2매)
	공항과 지역협력을 통한 외래객 유치 전략	강소리		
장려상 (3)	국민경제적 이익 증대 및 항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공항정책 연구(인천국제공항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최종해	한국항공협회 회장 상장	- 30만원 - 동남아 왕복항공권(2매)
	국내 저비용항공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의 NDC 정책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채은 김승리 박건우		
	한중 항공운송의 사드 사태 영향에 대한 연구	박승화		

조선 최초의 여류비행사 권기옥!

그녀는 고향인 평양에서 열린 어느 미국인의 곡예 비행쇼에서 비행기를 처음 접하며 창공을 누비는 '비행'을 통해 온전한 '자유'와 나라의 '독립' 누리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다. 그것은 시대에 구겨진 그녀의 숨통을 송두리째 꿰뚫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자였고, 나라를 잃은 오리였으며 고로 그녀에게 비행은 허상이자 비현실이였다.

하지만 사사로운 절망감에 사로잡혀 넋을 놓지 않은 그녀는 3.1운동에 참여하며 대한의 독립을 울부짖다 일본 다나카 경위에게 포박당해 지독한 고문을 받게 된다. 고문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수록 그녀의 내면에선 비행을 향한 본능 같은 욕망이 격렬하게 들끓었고, 그건 '자유'를 향한 누를 수 없는 순수한 욕망이었다.

결국 그녀는 억울한 재판으로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지만 출소 후에도 비행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나카 경위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임시정부 송미령 여사의 도움으로 중국 운남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하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출소한지 5년 만에 첫 단독비행에 성공하며 조간신문에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 권기옥"의 기사가 실리게 된다.

한편, 권기옥의 기사를 확인한 다나카 경위는 분노하며 그녀를 암살할 밀정을 알아보게 되고, 권기옥의 가장 가까운 동료인 숙정의 가족들을 인질삼아 권기옥을 암살하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권기옥은 임시정부 송미령 여사의 도움으로 이러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동료인 숙정을 죽이고 숙정 또한 이 아픈 시대의 희생양이었음에 슬퍼한다.

이러한 다나카 경위의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투기 한 대만 마련해주면 당장 일왕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임시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임정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일본군과 마주하기 위해 중국군으로라도 발령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녹록치 않았다.

다나카 경위의 포위망은 계속해서 좁혀왔고 결국 그녀는 쫓기듯 도망치다 다시 한번 송미령 여사의 도움으로 중국 혁명군 장개석 총사령관의 부대에 들어가게 되고 상해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첫 전투에서 수적으로 열세하여 후퇴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권기옥은 징계를 불사하며 뛰어난 전투기 조종능력으로 상해전투의 첫 공중전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엔 본디 승자가 없었고 최악이었으며 이는 전쟁의 참사가 증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비행은 멈출 수 없었고 비가 그치고 순풍이 풀자, 그녀의 전투기는 '비행'을 통한 온전한 '자유'와 나라의 '독립' 누리고 싶은 꿈을 위해 다시금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람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힘을 주어 폭탄 투하버튼을 눌렀고, 그리고 번쩍, 그녀의 염원이 창공에서 빛나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 공항 사람들(정 수 미) -

누군가의 자리를 쉴 새 없이 닦고 쓸던
비닐장갑조차 사치였던 그 손엔
바삭 마른 북어같은 까슬한 잔가시가 올랐다
매일같이 비행기를 탔지만
비행기 여행이라곤 가 본 적 없는 그는
내 어머니고 네 어머니였다

푸욱 삶은 우거지처럼 축축 늘어져
푸른 빛 다한 등 기댈 곳은
조업차 아래 잠시의 그늘 뿐
엔진 불바람 속 가쁜 호흡 몰아쉬며
열독 오른 한여름 계류장을 종일 뛰던 아버지는
섭씨 50도 아스팔트 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한 겹 녹으면 두 겹 쌓이던 그 겨울 가루눈은
속눈썹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가장의 책임감이었다
한강마저 얼어붙은 날
수백 개의 기내식 카트를 싣고 내리기 위해
동작이 굼떠선 안 된다는 남편에겐
부츠 안 두 겹 양말만이 최선이였다

길디 긴 하루, 구두 속 부르튼 발 달래는 퇴근길
내 새끼들 좋아하는 과자 사들고
오늘 들은 육지거리는 또 한 번 마음에 묻는다
경력 7년 차, 젖은 눈 숨기는 범은 배웠어도
목젖 누르는 통증 숨기는 범까진 못 배운 그는
내 아내,
그리고 네 아내였다

먼지 속을 어지럽게 날아 꽃히던 작업반장 고함소리
물 빠진 작업복 위로 허영게 말라붙은 소금 땀 한주먹
시린 겨울 공기 사이로 비어져 나오던 젖은 한숨 한자락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었던 스케줄표

설렘으로 달뜬 비행기 안
그 뒤편에선 또 하루 묵묵하게 살아내고 있는
설렘 것도 없는 일상들